

# 安東大宗會報

發行人: 金泰亨  
編輯人: 金命載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시東大門區龍慶洞1洞112-49  
電話: 244-3717  
對摺戶號: 010983-31-0513119  
郵便番號: 130-091

## 『白凡逸志』

### 한 독립운동가의 인생역정 遺書대신 기록

※이 기사는 中央日報 一九九一年 八月 三十日 字 崇의 여전 문에 창작 전기 철 교수가 쓴 기사이다.

『백범일지』는 한 독립운동가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던지려 한 것으로 마지막 남기고자 한 역정의 기록이면서 독립의 방편으로서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 기록이다. 그래서 白凡은 이 기록을 유서로, 또 독립운동에 대한 殷鑑으로 남긴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의 私의인 삶은 공동체적 인 삶으로 바뀌거나 공동체적 삶으로 수렴되고 만다. 김구가 살아 나가는 길에 그것을 보여 준다.

김구는 어린 시절 양반에 대한 굴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을 익혀 진사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과거시험장에서 공동체를 관리하는 관료가 타락한 것을 보고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 관상공부, 지관공부, 동학접주 등을 거친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배움이 커지고 자신의 私의인 삶은 공동체적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는다. 나는 나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집단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장성해 갈수록 깊어져

『백범일지』가 후손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문지기의식」과 「遺民의 故土 회복의식」으로서이다. 그의 문지기의식은 장성하여 민족적 자아로 살아간 이후 그의 생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된다. 순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한 것이며, 임시정부에서 청사의 수위를 지명한 것,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 그가 「나의 조국」이란 논설을 통해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원한 일등에서 보듯 거대한 생명체를 지키겠다는 그의 의지는 자신의 인생목표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백범일지」를 이루고 있는

주구가 되어 있거나 천민이 되어 서로 헐뜯고 살아가는 것을 목격한다. 우두머리는 많고 쉽게 분열되며 남의 편에 잘 넘어가는 이들이 대안인들이다.

그는 그 유민에게 고토회복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한다. 유민은 정착지를 찾아 떠나거나 자신들의 고토를 회복하여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가 이끈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민의식에서 비롯된 고토회복운동의 중심체다.

붕괴위기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이끌고 상해·중경 등지로 옮겨 다니다가 이봉창·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의거를 감행하게 했던 것이나 해외동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호소하면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독립당을 만들어 독립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도 모두 이와 같은 유민의 고토회복의식에 기인한다.

그는 순수민족주의자이며 혈통주의자이기도 하다. 사상의 조국이나 주의의 조국을 원치 않으며 해방된 조국에 와서도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다. 분단된 조국을 보고 완전한 독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의 민족주의 사상은 약소민족에게 영원한 진리일 것이다. 우리는 민족주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는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二面에 계속

## 一九九四年度 定期總會開催公告

一九九四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자 하니 隣近 宗親과 相互 連絡 하시어 多數 參席 하심을 要望 하나이다.

一、日時: 一九九四年 五月 七日 雨天不拘

午前十一時 正刻 開催

二、場所: 昌慶宮(舊昌慶苑)

交通便: 地下鐵 一號線 鍾路三街驛 下車, 市内버스 便 昌慶宮 正門 앞 下車

2 6 8 20 5-1 20-2 34-1 84 85 205 331 710 222

三、討議案件

(一) 一九九三年度 決算報告

(二) 一九九四年度 豫算審議

(三) 其他事項

四、參考事項: 古宮에 入場하여 總會場에 들

어오시기 前에 大宗會에서 發行한 入場券을 利用 하시기 바랍니다.

※個別 入場時에는 入場料를 내셔야 합니다. 但, 敬老證이 없는 사람에 限합니다.

五、會費: 壹萬五仟원 (通常會費 包含)

當日 晝食 提供

一九九四年 四月 日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泰亨 白

# 追慕詩 鑑賞

이 詩文은 忠烈公 25 代孫이며 忠烈公 九代孫인 掌令公 諱 湜의 16代孫 泰漢氏가 先祖任을 追慕하는 마음으 로 엮은 詩이기 때문 에 여기에 紹介합니다.

## 追慕忠烈公先祖

我祖大名冠海東  
扶傾濟弱古今同  
一清國內能陳善  
再討島夷竟效忠  
籌策可比運幄裡  
智謀自許率軍中  
宗臣偉蹟登青史  
山高水長尚有風

又

忠烈大名垂我東  
其麗萬億一根同  
百年青史碑前碧  
一片丹心壁上紅  
賞功不自非題首  
臨事無常每用中  
墓兆依依春草沒  
永思淚落洛濱風

추모 충렬공 조상님  
우리 조상 큰 이름  
해동엔 떨치고  
난국을 구원하고 약  
한 백성 구제하셨네  
한 나라 평화 위해  
좋은 계략 세우고  
대마도 정벌하여 충  
성의 뜻 본받게 했네  
전술 계략 비길데  
없어 싸움마다 승리하  
고

又(우)

지혜와 전략 뛰어난  
군대 잘 통솔하시다  
일등공신 위대한 업  
적 청사에 오르고  
역사 있는 한 영원히  
그 기풍 높으리.

충렬공 큰 이름 우리  
나라에 빛나고  
그 공적 아름다움의  
만년까지 뻗으리라  
오랜 세월 빛난 청  
사 비석 앞에 푸르고  
한 조각 붉은 마음  
벽상에 붉도다  
쌓은 공적 글로는 다  
열거지 못하고  
국난이 있을 땐 누구  
도 따르지 못할 계책 있  
도다  
묘소는 과란 봄풀 속  
에 잠겼으나  
영원히 사모하는 감  
격에 눈물 짓네.

## 알 수 있어라

① 급히 나려온 물  
따뜻한 별  
고운 꿈임의 뜻을  
알 수 있어라.  
높은 벼슬 헌신작 버  
리듯  
어느날 갑자기 가족  
과 함께  
충청도 천리길 멀다  
않고  
외로운 길 택한 뜻  
도 알 수 있어라.  
고대광실 서울영화  
싫다하시오

## 「祝」壯元入賞

大宗會運營委員兼理事(提學公派會長) 松堂金相喆 詩碑  
○1993年 10月 11日 大田엑스포 世界博覽會 漢詩 白日場 詩題 祝 韓國經濟發展 壯元入賞

○1989年 10月 27日 天安三巨里 文化祭 漢詩 白日場 詩題 晚秋 壯元入賞

純厚心情各守眞  
公營私業日新新  
雄飛自負二韓族  
大會同參四海人  
世界通商何必利  
遠方修善莫非親  
今回博覽由經濟  
民力伸時國力伸

순후한 심정으로 진  
심을 각기 지켜  
국영과 민영기업 날  
마다 새롭도다.  
웅비의 기상으로 삼  
한민족 자부하고  
엑스포 대회에는 사  
해인 동참했네  
세계 각국 통상은 이  
권만 다들소나  
먼나라 수교하면 친  
해지지 않으리  
이번의 박람회는 경  
제정책 연유니  
민력이 신장하면 국  
력도 신장한다.

궁벽한 ② 여울가 분  
터에 자리잡아  
③ 뒷날 몰아치는 태풍  
을 피해  
농사꾼으로 사신 뜻  
도 알 수 있어라.  
④ 관찰사 수동 아저  
씨에  
말없이 건네 준  
⑤ 한송이 면화(綿花)  
에 담긴  
선견지명(先見之明)  
의 뜻도 알 수 있어라.  
자손이 부귀영달한  
다는 ⑥ 통소혈도 마다  
수많은 자손이 무궁  
하리라는  
⑦ 생양동 아늑한 명  
당을  
유택(幽宅)으로 삼  
은 뜻도 알 수 있어라.  
오늘날 버드랭이 여  
섯 마을에  
수천 수만의 자손이  
번창하여  
오손도손 잘 사는 건  
모두가 임의 음덕  
(陰德)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라.

## 贊助者名單

| 派別    | 姓名    | 金額     | 住所     |
|-------|-------|--------|--------|
| 翼元公派  | 政會    | 二〇,〇〇〇 | 忠南安市   |
| 郡事公派  | 光默    | 二〇,〇〇〇 | 忠北中原郡  |
| 提學公派  | 東振    | 一〇,〇〇〇 | 서울市瑞草區 |
| 正儀公派  | 榮燦    | 一〇,〇〇〇 | 釜山市    |
| 翼元公派  | 湧信    | 三〇,〇〇〇 | 木浦市    |
| 按廉使公派 | 在勳    | 一〇,〇〇〇 | 서울市    |
| 翼元公派  | 우경    | 二〇,〇〇〇 | 京畿道漢金市 |
| 提學公派  | 전침공중회 | 五〇,〇〇〇 | 典籤公派宗會 |
| 都評議公派 | 태현    | 二〇,〇〇〇 | 天安郡    |
| 翼元公派  | 태조    | 五〇,〇〇〇 | 釜山市    |
| 翼元公派  | 윤성    | 二〇,〇〇〇 | 慶北榮豐郡  |
| 翼元公派  | 태병    | 三〇,〇〇〇 | 서울市瑞草區 |
| 都評議公派 | 태용    | 二〇,〇〇〇 | 江原道三陟市 |
| 翼元公派  | 태근    | 二〇,〇〇〇 | 全北扶安郡  |
| 郡事公派  | 태현    | 二〇,〇〇〇 | 서울市    |
| 按廉使公派 | 태근    | 三〇,〇〇〇 | 京畿道高陽市 |
| 提學公派  | 태욱    | 三〇,〇〇〇 | 서울市    |
| 典書公派  | 정회    | 三〇,〇〇〇 | 京畿道安城郡 |
| 按廉使公派 | 정圭    | 二〇,〇〇〇 | 慶北榮州市  |
| 提學公派  | 榮俊    | 二〇,〇〇〇 | 서울市    |
| 翼元公派  | 榮俊    | 二〇,〇〇〇 | 京畿道富川市 |
| 按廉使公派 | 태현    | 二〇,〇〇〇 | 忠北清州市  |
| 大護軍派  | 화승    | 二〇,〇〇〇 | 서울市    |
| 按廉使公派 | 용세    | 二〇,〇〇〇 | 서울市    |
| 文溫公派  | 재회    | 三〇,〇〇〇 | 서울市    |
| 按廉使公派 | 한준    | 三〇,〇〇〇 | 忠南公州市  |
| 文溫公派  | 영식    | 三〇,〇〇〇 | 忠南瑞山郡  |
| 提學公派  | 규진    | 三〇,〇〇〇 | 釜山市    |
| 提學公派  | 인목    | 五〇,〇〇〇 | 忠北清州市  |
| 按廉使公派 | 인목    | 二〇,〇〇〇 | 忠南大田市  |
| 翼元公派  | 재택    | 二〇,〇〇〇 | 서울市    |
| 按廉使公派 | 재택    | 二〇,〇〇〇 | 忠北清州市  |
| 按廉使公派 | 봉관    | 二〇,〇〇〇 | 全南光州市  |
| 郡事公派  | 泰龍    | 二〇,〇〇〇 | 慶南密陽   |
| 提學公派  | 忠會    | 二〇,〇〇〇 | 서울市    |
| 按廉使公派 | 희대    | 二〇,〇〇〇 | 서울市    |
| 翼元公派  | 진황    | 二〇,〇〇〇 | 慶北大邱市  |
| 大護軍派  | 경회    | 二〇,〇〇〇 | 慶北大邱市  |
| 翼元公派  | 진회    | 二〇,〇〇〇 | 慶北義城郡  |
| 翼元公派  | 수석    | 二〇,〇〇〇 | 서울市    |
| 按廉使公派 | 진상    | 五〇,〇〇〇 | 京畿道安城郡 |

(一面에서 계속)  
白凡 金九의 생애  
金九는 日本이 조선  
을 침범하기 위해 그  
첫발을 내디딘 187  
6년 黃海道 海州에서  
몰락 양반가의 집안에  
서 태어났다.  
출신성분의 한을 풀  
기 위해 진사가 되려는  
야망을 가지나 곧 그만  
두고 관상·지관공부  
로 소일하다 동학의 접  
주가 된다. 싸움에서  
패해 安重根의사의 본  
가에서 숨어살면서 세  
상을 보는 눈을 배우고  
여러 지방을 주유하기  
도 한다.  
이때부터 민족의식  
이 성장하여 충동적으  
로 일본군 장교를 죽인  
다. 이 민족이 항후를  
시해한 것을 복수하기  
위함이나 이 사건으로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곧 탈출  
하여 떠돌아다니다고  
항에 돌아와 교사가 된  
다. 이후 안악사건,  
식민회사건 등에 연루  
되어 또다시 감옥살이  
를 한다.  
1919년 만세운  
동 직후 上海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가담한  
다. 임시정부 내에서  
경무총장·내무총장·  
국무령등을 거쳐 19  
44년 주석이 된다.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임시정부의 침체를 벗  
어나기 위해 테러를 도  
모하기도 하며, 광복군  
을 조직해 독립을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도 한다.  
그는 조국의 광복을  
민족의 손으로 이룩해  
야 한다고 생각한 민족  
주의자였다. 해방된  
조국의 소식을 접하고  
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  
던 것도 신식민지를 격  
정했기 때문이다. 그  
는 그의 그러한 사상을  
싫어했던 일부세력에  
의해 쓰러졌다. 그러  
나 남한의 민족주의 정  
치사상의 많은 부분이  
그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범일지』는 처음  
기록할 때는 상·하 두  
편의 필사본이었으나  
해방후 합본하여 출판  
됐다. 그리고 출판당  
시 어려운 문헌투를 쉬  
운 국문투로 옮겨 놓았  
다. 상편은 아들에게  
남긴 유서이며, 하편은  
해외동포에게 남긴 유  
서이다.

(주)  
① 생양동 비문에 「湧退急  
流란 글귀가 있음-용  
감하게 벼슬을 버리고  
빨리 내려옴.  
② 여울가 분터-「단천 분  
터」란 곳. 현 공주군 단  
천면 송하리 분터 마을.  
③ 뒷날 몰아치는 태풍-  
이 조종 때 방조김자  
점역적 음모 사건.  
④ 관찰사 수동-종숙 어  
른이 전라도 관찰사로  
오실 때 찾아보고 서울  
로 가자고 했음.  
⑤ 면화란 화를 면한다(免  
禍)는 뜻으로 김자점란  
을 면한다는 뜻.  
⑥ 통소혈-밀양박씨 선  
조의 명당자리. 현부여  
읍 신성리 증배실 부락  
 뒷산.  
⑦ 생양동 유택-현 공주  
군 단천면 정덕리 생양  
동 분지에 할아버지 묘  
소가 있음.

(前號에서 계속) 회의(會議)는 언제까지라도 계속되었으나 세조(世祖)의 명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국(結局)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충렬왕(忠烈王)은 스스로 중서성(中書省)에 올리는 장문(長文) 상서문(上書文)을 썼다. 최후(最後)의 의력(意力)을 발휘하고 짜내서 세조(世祖) 후비(後妃)에게 올린 상서(上書)였다. 이것을 받아들일지 않을지 고려(高麗)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만(萬)천명(千名), 정군(正軍) 한(一)만 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음. 병(兵)糧(糧)은 고려(高麗)의 계산으로 11만 석, 짐물(什物), 기계(機械)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무릇 원컨대 힘을 다하여 성덕(聖德)에 보답코자 합니다. 나는 예전에 조정(朝廷)에 있었고, 일찍이 행정(行省)을 구당(句當) 사무를 담당(擔當)한 일을 맡아가지고 신소(宸所) 임금(君)계신 곳에 알렸으나 아직 명확한 하답(下答)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생각컨대, 제후(諸侯)를 불러들여 상조(相助)하는 것은 자고로 도리입니다. 요

드시나와 상의한 후에 시행(施行)케 하고, 사신(使臣)을 차출하여서 조정(朝廷)에 보내는 데도 또 반드시 친개(賤介)와 같이 가도록 하시오. 소국(小國)·고려(高麗)를 말한 것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 때문에 일찍부터 뜻을 상실하여 수저(收貯)도 못합니다. 현재 있는 군량(軍糧) 7만 7백 27석 한석(漢石)을 제외하고, 내외공사(內外公使)가 다 고갈되었습니다. 이럼으로써 대소관원(大小官員)의 월봉(月俸)과 국용(國用)은 다 선(多船)의 부세(賦稅)에 전부 수취당하고, 다시 중의(中

금(金) 담래(番來) 시킨다면 청초(靑草)·5월을 말한(말) 기다리지 않고 군량(軍糧)도 더욱 모자랄 것이라고 보는데 마료(馬料)·말(말) 먹이)는 장차 무엇으로 지원할 것인가. 또 물을 것도 없이 장차 5·6월 가지고 방양(放洋)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 나라 는 매년 5·6월에는 때우(霜雨)·비(雨)가 그치지 않으므로 조금이라도 서풍이 불면 바닷길(海路)이 불안합니다. 만일 시일을 끌어서 방양(放洋)한다면, 가을의 식량과 배에 실을 식량은 모두 잊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군민(軍民)이 일시에 먹을 것이 없는

다 한다는 것은 부응(副應)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컨대 전항(前項)의 1천군대를 가지고 새로 정토군액(征討軍額)을 보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국(小國)·고려(高麗)는 전에 다루가치(達魯花赤)가 있을 때, 내외의 인구를 합해서 쓴 궁전(宮)의 호수(戶數)에 이르러까지 전부 거두어왔습니다. 또 전에 동정(東征)의 때에 5천 3백명 군대의 배를 놓지 않고 의갑(衣甲)을 많이 없애 버려서 겨우 모아서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새로 뽑은 4천 6백명 본래 하나의 보급물자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몸을 방비할 것인가. 요드러 바라옵건대 잘 상신(善奏)해서, 의갑(衣甲) 5천 벌을 하사(下賜)하여, 그 힘을 증강시키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소국(小國)·고려(高麗)는 일찍이 군민(軍民)은 일찍이 진도(珍島), 탐라(耽羅)·제주도(濟州道), 일본(日本)에 있어서 여러 번 세곳에 있어서 여러 번 전공(戰功)이 있었어도 아직 관상(官賞)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요드러 바라옵건대 전공(前功)을 추록(追錄)해서 각각 패면(牌面)을 주시고, 그래서 장차 효력을 장려하는 것을 바랍니다. 기타 군액(軍額)·월급(月給), 군량(軍糧), 역민(役民)·일꾼(日꾼)에 대해서 구체적 숫자(數字)를 올려서, 또 패면(牌面)을 주실 것을 원하는 군민(軍民)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열기(列記)하였다. 그래서 최후(最後)에 김방경(金方慶)의 일(一)에 대해서 썼다.

정(正)인규(趙仁規), 인후(印侯)를 원나라(元)에 파견한 이튼날(翌日) 원나라 사신이 개성에 들어와서 비단 2만 필을 가지고서 고려의 부담(負擔)할 군량(軍糧)에 대체하라는 중서성(中書省)의 취지를 전했다. 비단 2만 필은 받지 않은 것보다 훨씬나았으나 지금의 입장(立場)으로는 가령 얼마나 되든지 쌀이 더 귀중하였다. 11월부터 12월 까지, 고려는 함선의 건조(建造)하는 외에 정규군(正規軍) 1만 5천 수(水手) 1만 5천의 징집(徵集)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때문에 국내의 소요(騷擾)는 전역(前役) 때의 비할 바가 아니었다. 12월에 왕(王)은 하정사(賀正使)로서 김방경(金方慶)에게 임조(入朝)할 것을 명(命)하였다. 왕(王)으로서 세조(世祖) 후비(後妃)가 동정(東征)에 대해서 어떠한 방략(方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어떠한 영향(影響)을 받을 것인가, 그러한 일을 김방경(金方慶)으로 하여금 타진(打診)시키기 때문이요, 자국(自國)의 궁상(窮狀)을 하소할 최후(最後)의 상주(上奏)를 시키기 때문이었다. 김방경(金方慶)도 지원 18년(서기 1281년)은 고려(高麗)에 있어서 용이(容易)하지 않은 해여서, 노인(老臣)으로서 최후의 봉공(奉公)을 할 작정으로, 그의 일을 인수한 것이 다. 그래서 12월 초순(初旬) 30명 정도의 종자(從者)를 데리고 개경(開京)을 출발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금양국(遼金兩國)은 우리 조상을 책봉해서 개부의삼사(開府儀三司)를 봉했습니다. 나도 또 의람되게 승권(聖眷)·聖恩(聖恩)을 힘입고, 일찍이 특진하여 상주국(上柱國)을 배명(拜命)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춘탁(寸度)·미루어 남의 마음(心)을 헤아림(心)하건대, 제후(諸侯)로 하여금 상국(上國)·원나라(元나라)의 재보(宰輔)·宰相을 보필하는 것(事)의 직을 담당케 하는 것은 자고로 지금까지 그 예(例)가 있습니다. 요드러 바라옵건대 선주(善養)·잘 말함(善說)하여 행성(行省)에 교시하여 무릇 대소(大小)의 군정(軍情)은 반

宗親消息

失傳되었던 別坐公墓 찾다

翼元公派 文靖公諱碩의 長子 吉安君 諱義童의 三子 通訓大夫 別坐公諱澤之墓가 譜牒上에는 抱川郡內 村面 奄峴里에 모셨다고 相傳해 오고 있으나 碑도 表石도 없이 失傳하여 온지가 오래 이던바 先祖任의 도우심으로 一九九三年三月末頃 드디어 封墳은 平土化 되었으나 埋沒된 墓碑와 床石을 發掘、三百餘年 만에 確實한 證據를 얻어 直孫 들로 墓域 復元 推進事

典籤公墓와 監察公墓를 同原으로 모시다

翼元公派 典籤公諱宗潤의 壇所가 京畿道 抱川郡 內村面에 있고 公의 아들 監察公諱琛의 壇所는 忠北塊山郡 靑川面 地境里에 있어 守護와 獻享에 隘路가 많아 宗人들의 宿願으로 西紀一九九三年十月 十九日 公의 孫 靑安縣監公諱善孫의 墓를 中心으로 同原上으로 移壇하고 同時에 石物一切로 墓儀를 갖추어 永芝幽宅을 奉安케 되었는바 享祀日은 陰十月二日이다.

都評議公派 派宗會開催

都評議公派에서는 지난二月五日 派宗總會를 많은 宗人들의 參與에 和氣霽靄한 分圍氣에서 盛大히 開催하였다. 이날 會長 選舉가 있었는데 前會長 冕鎬氏의 후임으로 寅秀氏를 滿場一致로 選出하였다.

翼元公墓域 莎草

翼元公派 會長 榮會氏는 지난一九九三年九月十六日 京畿道 楊平郡 楊西面 木旺里에 모셔 있는 翼元公諱士衡 密直使公諱陸 兩位 분할아 버린 墓所의 莎草와 石築等 補修作業을 맡음하게 마쳤는데 여기에 所要資金 參百五拾萬원을 單獨負擔하였다.

시카고에 암전문센터 개원 提學公二十代孫 김남오氏

한인 衞生醫學 韓人 診療의 료시설이 시카고에서 점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암 전문 센터』가 韓人의 사에 의해 세워져서 작년 11월부터 亞포이샤 金南오(방사선과)씨가 설립한 암 전문 센터 『Chicago Cancer Treatment Center』(CCTC)가 개원했다. 『Susan Cancer Early Detection Center』 『SCEDC』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Dr. Kwon CTC가 암 환자 치료를 SCEDC가 암 조기 발견이나 검사 를 위해 각각 설립했다. 『먼서 시카고에 서는 이런 암 전문 센터 가 韓人의 사회와 주류사 회를 동등하게 최우선인 것으로 안다.』 고 소개했 다. Dr. 김은 『현재 담당 중인 암 환자 중 韓人의

周王山 温泉 開場

宗親 金淳植(周王山 温泉觀光호텔代表理事 會長)은 經營하여오던 慶北靑松所在 觀光호텔 앞마당에 約二個年 에 걸쳐 pH9.58의 世界에서 第一간다는 良質의 알칼리성(중탄 산나트륨성) 温泉을 開發하는 데 성공하고 同時에 600名을 收容할 수 있는 大衆温泉사 우나를 93年末에 開場 하였다. 慶北靑松은 五大國 立公園의 하나인 名山

周王山 國立公園과 數百年間 歷史를 자랑하 는 달기 藥水가 있다

周王山 國立公園과 數百年間 歷史를 자랑하 는 달기 藥水가 있다. 『30~40分거리내에 安東과 東海岸인 盈德이 있어 觀光休養地로 서는 이름있는 곳으로 누구나 家族同伴하여 가볼만한 곳으로 손꼽 힌다. 또한 우리 宗親의 한사람이 慶北靑松을 温泉地帶로 開發하 여 地域發展에 貢獻하 고 있음에 對하여 宗人 모두가 慶賀하여 마지 않는다. 淳植宗親은 現大宗 會 監事인을 알려 드립니다.』

**예원전향**  
代表 金在均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 1·2호)  
TEL: 783-3166 · 783-3167  
780-8477  
FAX: 780-8478  
자택: 552-5327

많은 수가 아니어서 다 행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 암 센터는 韓인들에 게서 많이 발병하는 위 암, 간암, 장암 등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 는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차량 등을 동원해 각 지역을 정기적으로 돌면서 암 검사 및 기타 계몽 세 미나를 펴겠다고 덧붙였다. CCTC 회장 Dr. 김과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 한 영국의 의사 딘 아 민씨 외에 Dr. 왈토카 스트나도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해와 진료 를 맡으며 이외에 테크 너러지스트 2명, 리셉 셔니스트 1명, 휘저시 스트 2명 등이 일한다. 2년전 당국으로부터 2년 추허가를 받아 최 근 완공된 이 센터는 92년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특수설 계와 건축자재가 요구 되면서 공사가 지연됐 었다. 이 센터의 총 공사비 와 의료장비 구입등에 소요된 경비는 약 3백 60만달러에 달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는데 선형 가속기 1대 값만도 1 백만달러이다.

改碣告由

지난 1993年 9月 2日 都評議公派에 서는 派祖 都評議公諱九鼎과 監牧公諱子瞻 兩位分의 改碣告由를 올려 英靈을 安慰하 니 後孫의 道理가 아니겠 는가. 여기 後孫으로 서 祖上을 崇慕하는 마 음으로 先世의 狀詞이 未備함을 慨歎하여 譜牒과 世傳口碑를 모아 敍하고 삼가 명하노니, 洛水邊의 上洛臺는 勝國古閣 터전이고 佳山麗水 自然景은 洗心淨魂 操身이라 忠烈古里 清雅儀範 開詔之北 封塋이요 杏峴中岡 貞珉之琢 이山川과 함께 하리

昇進 日帝 때 「元寇殉國碑」 건립 高麗軍 존재 이 폐

교표석 옆에는 지금도 「元寇殉國忠魂碑」가 서 있고 꽃다발이 생생한 데, 설명문에는 이렇 게 적혀 있다. 「文永의役 新城古戰場(縣指定史跡)」 ▲千人塚·文永11년 10月 14日(1274) 에 몽고군이 내습하여 상륙하였다. 守護代 平景隆은 1백餘騎로 이 틀동안 싸웠으나 元軍 이 너무 많아 전멸당하

金方慶 장군이 倭兵을 섬멸한 곳 壹岐島 高麗橋 ②

하는 탄성이 나왔던 것 이며, 이곳에서는 그 뒤 이 싸움을 고려교 전투라 치부하게 되었 던 것이다. 그러나 明治政府는 이 싸움을 新城古戰場 昇進 都評議公派 元重宗 親은 法務部檢察局 檢 察第三課 檢察事務官 으로 勤務하다가 一九 九四年 二月 二日자로 서울地方檢察廳西部支 廳事件課長으로 昇進 發令되었기에 이에 알 려드립니다. 여기서 自결하였다고 전 한다. 蒙古軍 1만명 의사 들이켜 보면 우리나라 라는 몽고군의 수탈과 三別抄의 抗戰으로 백 성들이 초근목피로 목숨을 부지하던 民食草 木之實의 시대였다. 그 런 속에서 3만여명의 목수들이 징발당해 단 5개월만에 9백여척 이나 되는戰船을 만들 어 냈으니 스스로 日本 征戰같은 큰일은 생각 지도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 군사들 은 물론 목수들까지 극 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 었다. 특히 목수들은 몽고군의 횡포와 강압

다친 바람은 神風이 아 니라 고려목수들의 바 람이었던 것이다. 고려교와 神風의 왜 곡된 현장 壹岐島는 아 직도 안개속을 헤매는 한일관계처럼 시정되 지 않은 채 오늘날을 살 고 있다 할 것이다. 끝.